

7개국 음식 맛보러 오세요

비단고을, 다문화가족 식당 '코끼리' 개점



12월 21일 나주시 중앙로에 개점한 다문화음식점 '코끼리'에는 우즈베키스탄, 몽골,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 이주여성 7명이 근무한다.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문화생활을 돕고, 고국의 음식체험을 통해 사랑방 역할을 할 음식점이 문을 열었다.

나주시 지역 비영리민간단체인 비단고을지혜나눔사랑회(대표 원광·심향사 주지)는 12월 21일 나주시 중앙로에 다문화음식점 '코끼리'를 개점했다.

점포 상호는 동남아지역에서 부와 화합, 성스러움을 상징하는 '코끼리'에서 따왔다.

식당에는 몽골(호숫, 초이방), 우즈베키스탄(하눔, 필리핀(퐁피야 상하이), 중국(딤섬, 사천식 간풍기), 베트남(쌀국수, 월남쌈) 등 모두 7개국 12가지 음식을 판매한다.

비단고을지혜나눔사랑회는 지난 7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의 현지점검을 받은 뒤, 10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수행단체로 운영을 시작했다. '코끼리'에는 국도비 7000만원과 2200만원의 자부담금이 투입됐다.

현재 '코끼리'에는 주방장 1인을 포함해 우즈베키스탄, 몽골,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의 이주여성 7명이 근무한다.

비단고을은 코끼리 식당을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다국적 음식의 체험공간이자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코끼리 식당의 운영 수익금은 독거노인 밀반찬 △다문화 청소년 장학

사업 △다문화 가족의 문화체험 활동 지원 △이주민 노동자 및 가족의 인권보호와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에도 사용된다.

21일 개점식에는 원광 스님, 도제 스님(길상사 주지), 이영규 나주시청 자치위원회 국장 등을 비롯해 100여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해 각 나라의 음식들을 시식했다.

원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다문화 이주민들이 외로움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며 "많은 시민들 다문화식당을 애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에는 440여 가구의 다문화 가정이다. 이주민 여성이 나주에 정착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단고을지혜나눔사랑회는 나주 심향사 부설로 운영되는 다문화지원단체이다.

이 단체는 2004년 독거노인 밀반찬 배달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6000여 회 실시했으며, 2008년부터는 결혼이주여성들과 이동들의 가족나들이 및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비단고을지혜나눔사랑회는 22일 다문화가정을 위한 '동지팔죽나누기' 행사도 진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mybuda@hanmail.net

고창 청소년, 선운사 다도 체험

고창복지관 선운백로다회, 지역 청소년 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차(茶)와 예절'을 가르치는 템플스테이가 열렸다.

차(茶)문화 보급을 통해 지역문화 사업을 이끌고 있는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완) 선운백로다회는 12월 16일 고창 선운사에서 지역청소년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지역문화사업 일환으로 다도프로그램 선운백로다회를 진행 해온 복지관은 다도 선생님을 초청해 학생들에게 차를 우리는 법, 찻잔 잡는 법, 차 마시는 예절 등 한국의 차 문화를 소개했다. 학생들은 일대일 지도를 통해 한복 웃고름 매는법, 공수, 배례법 등 전통예절도 체험했다.

선운사 포교국장 종진 스님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의 전통 차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문화 보급사업인 선운백로다회는 지역에 차(茶)와 예절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7월에 개설돼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기초반, 중급반, 직장인반으로 6개월부터 2년 과정으로 진행되어 다도(茶道)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있다.

종진 스님은 "선운백로다회는 앞으로 지역 유치원 및 초등학교와 연계해 다도 예절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지역 병원과 요양원, 복지관 등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차 나눔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노인복지회관은 16일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한 해 동안 수고한 300여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제3회 복운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의 날 송년행사를 개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동지팔죽 나눔 곳곳 열려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를 맞아 잊혀져 가는 세시풍속 전승을 위한 '팔죽나눔 행사'가 전북 지역 곳곳에서 열렸다.

전북 완주 송광사(주지 도영)는 3000명분의 동지 팔죽을 준비해 송광사 경내와 경기전, (구)코아백화점, 모래내시장, 정심원, 서원노인복지관에서 동지 팔죽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익산 함열읍 금당사(주지 탄오)도 함열 농협 주차장에서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함께 팔죽을 나누며 이웃과 함께 하는 세시풍속의 미덕을 이어갔다.

일부 시민들이 보시한 성금은 함열읍 사무소에 기탁했다.

익산 송림사(주지 지광)도 동지별회 후 인근 마을의 경로당과 군부대등에 팔죽과 떡, 과일 등을 돌리고 이웃의 정을 함께 나누었다.

도영 스님은 "붉은 팔죽을 함께 나누며 묵은 것을 털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려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운 풍습을 우리 후손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전승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계종 부산연합회' 창립

내년 1월 11일 발기인대회

부산의 대표사찰인 범어사를 중심으로 지역 조계종 종단의 힘을 결집하는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결성된다.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12월 20일 안국선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1월 11일 오후 4시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발기인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내년 4월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사부대중결집대회(가칭)' 개최를 결의했으며 지역불자들에게 대한 교육불사와 학술, 문화, 복지, 장학사업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내은 기자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범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부처님이 봉안된 범륜대 만년 등으로 활기...

전통 상감청자 범륜대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빛 해탈을 위한 황금 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범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놓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범륜대입니다.

천년의 숨결로 살아온 상감청자!

그 전통과 자연으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사찰경제 발원과 불제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청다향의 마음입니다.

정갈하고 청정한 부처님의 공양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달마사 청오 합장



실용신안 특허의 기술

- 제품명 : 순금 상감청자 범륜대
- 높 이 : 120cm
- 원통폭 : 45cm
- 밑바닥폭 : 30cm
- 무 게 : 25kg

• 문의 :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010-4595-0017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령리 1156-4 달마사

나주 세지중, 2010벽상축제 개최

"오늘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연습한 우리들의 숨은 재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종립학교인 나주 세지중학교(이사장 원일·나주 미륵사 주지)는 12월 17일 세지중 벽상관에서 재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0 벽상축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1부 3학년 전원의 예비성년식과 태권도 시범, 스포츠댄스 공연에 이어 2부 학예발표회에는 사물놀이, 플루트, 첼로, 가야금, 포크기타, 드럼, 리코더 연주가 이어졌고, 연극, 각본별 댄스파티가 진행됐다. 학생들은 저마다 숨은 끼를 발산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마친 3학년 학생들은 어른임을 상징하는 상투를 쓰고, 성년 제례의식을 진행했다.

원일 스님은 인사말에서 "학부모의 교육적 욕구와 친환경 교실 만들기를 통해 나주의 명문중학교로 발전했다"며 "학교와 교사들의 정성과 학부모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벽상학원 세지중학교는 전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벽상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97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세지중 3학년 학생들은 상투를 쓰고 성년 제례의식을 진행했다.